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4. 2. 26.
No. 954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심교언
www.krihs.re.kr

이치주 부연구위원
김민철 연구위원
최명식 연구위원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주요 내용

- 정부는 기술형 입찰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찰이 발생하여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감소시키고 있음
-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에서 79건(57.7%)이 유찰되었으며,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건수는 20건(25.3%)에 머무름
- 기술형 입찰이 유찰되는 주요 원인은 입찰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단일응찰 시의 수의계약 전환 부족, 중소기업의 기술형 입찰 부족인 것으로 나타남

정책방안

- ① (계획 단계 보완)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요소의 누락 문제와 입찰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본계획 이후 계획설계를 공모하고, 계획설계를 수행한 설계사와 건설사를 기본·실시설계와 시공의 우선협상자로 선정
- ②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설계평가점수의 비중을 높이고(예시: 80%),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의 적용 확대
- ③ (낙찰자 보상 개선) 사업규모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 산정 요율 차등 적용(소규모 공사 요율 증대)
- ④ (수의계약 전환 근거 마련) 재공고 후 단일응찰일 경우,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구체적 근거와 수의계약 전환에 따른 절대평가 등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
- ⑤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확대) 중소·중견 건설사와 중소기업 설계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500억 원 미만의 기술형 입찰 확대

01. 기술형 입찰의 개념과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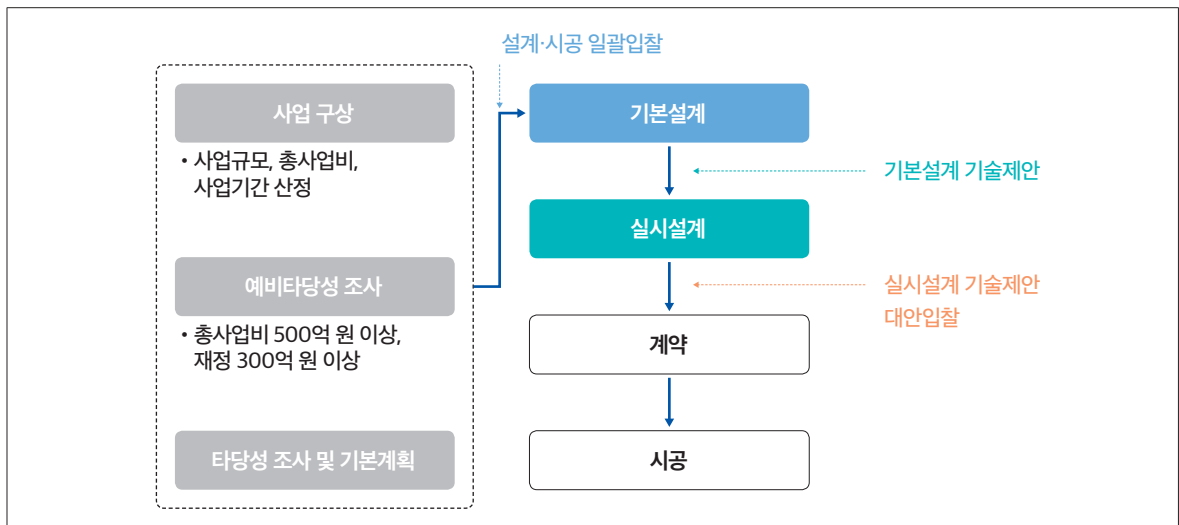
정부는 기술형 입찰의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에 특화된 전문성 및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중(국토교통부 2022)

기술형 입찰의 개념과 종류

기술형 입찰은 대형공사나 특정공사 등을 대상으로 낙찰자가 설계·시공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업이며, ① 설계서와 시공에 필요한 도서(도면과 서류)를 제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② 원안과 대안설계를 함께 제시하는 대안입찰, ③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필요하거나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적용하는 기술제안 입찰로 분류(국가계약법 시행령 2023)

- 대형공사는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공사를 말하며, 특정공사는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인 신규 복합공종공사 중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의미
- 기술형 입찰은 발주시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발주시점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작성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은 기본설계를 작성한 후, 실시설계 기술제안과 대안입찰은 실시설계를 작성한 후로 나뉨(<그림 1> 참조)

그림 1 기술형 입찰의 발주시점



기술형 입찰의 유찰 건수 증가

나라장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주된 기술형 입찰사업 137건 중에서 유찰 건수는 79건(57.7%)

- 201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유찰 건수가 2022년에 급증하였으며, 유찰된 사업들은 평균 2.5회 유찰
- 지속적인 기술형 입찰의 유찰은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감소, 정부 정책 구현의 지연을 야기

최근 급증한 건설자재 가격과 이로 인해 늘어난 공사비가 유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조달청 2023)

- 전년 대비 2019년과 2020년의 건설공사비지수는 4.47과 2.38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13.48과 14.16으로 크게 증가(국가통계포털 2023)

재공고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건수 증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재공고 이후 입찰자가 1인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입찰공고를 반복하거나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로 전환하는 비율 증가

- 나라장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2회 이상 재공고된 기술형 입찰은 유찰된 79건 중에서 56건(70.9%)이고, 5회 이상 입찰과 유찰을 반복한 건수도 24건(30.4%)

수의계약 대신 중심제로 전환할 경우, 공사기간과 공사비 모두 증가(<표 1> 참조)

-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발주되었다가 유찰되어 중심제로 전환된 후 다시 발주된 사업들의 입찰 공고일과 낙찰률을 조사한 결과, 최대 5개월의 공사기간 지연과 약 172% 이상의 공사비 증액

표 1 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이 유찰된 후, 중심제로 전환된 사업의 예

입찰방법	공고일과 공사금액		사례①	사례②	사례③
일괄입찰	최초 공고일		2014년 4월	2015년 10월	2015년 7월
	공고액		1,177억 원	1,158억 원	1,053억 원
중심제 전환	설계	공고일	2014년 10월	2016년 1월	2015년 12월
		공고액	25.7억 원	23.7억 원	41.1억 원
		낙찰액	20.8억 원	19.1억 원	31.1억 원
	공사	공고일	2017년 2월	2018년 12월	2018년 12월
		공고액	1,169억 원	1,637억 원	2,243억 원
		낙찰액	864억 원	1,350억 원	1,784억 원
일괄입찰 대비 중심제 낙찰률 비교			75.2% ¹⁾	118.2% ²⁾	172.4% ³⁾

주: 1) 75.2% = (20.8 + 864) / 1,177

2) 118.2% = (19.1 + 1,350) / 1,158

3) 172.4% = (31.1 + 1,784) / 1,053

자료: 국가철도공단에서 제공한 자료(국가철도공단. 기술형 입찰이 유찰 후에 중심제로 전환. <https://www.kr.or.kr>. 2023년 6월 20일, 요청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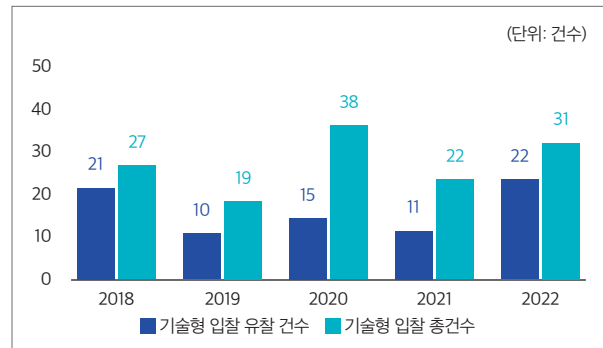
02. 기술형 입찰의 유찰 현황¹⁾과 원인

기술형 입찰의 유찰 현황

총 건수는 2020년에 가장 많았지만, 유찰 건수는 2018년(21건)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22건) 급증하였고, 유찰 비율(71.0%)도 크게 증가(<그림 2> 참조)

- 기술형 입찰 건수와 유찰 건수는 토목공사가 가장 많았고, 유찰 건수의 비중이 큰 것은 산업환경 설비공사로 나타남
- 2022년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유찰 비율은 72.7%(8건), 기본설계 기술제안은 83.3%(10건)으로 많이 발생

그림 2 기술형 입찰의 총건수와 유찰 건수: 2018~2022년



자료: 나라장터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1)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나라장터. 기술형 입찰사업. <https://www.g2b.go.kr>. 2023년 8월 26일 검색).

유찰이 발생한 후에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건수는 연평균 4건이며, 5년(2018~2022년) 동안 총 20건 발생

- 전체 유찰 건수 79건의 25.3%인 20건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으며, 토목·건축 공사는 수의계약 전환 비율이 저조(<표 2> 참조)
 - 토목공사는 연평균 1.2건(17.1%), 건축공사는 0.8건(21.1%)이 수의계약으로 전환
 - 유찰된 사업 중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1.6건(20.5%), 기본설계 기술제안은 2.4건(42.0%)이 수의계약으로 전환
- 입찰공고문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1,000억 원 이상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건수가 연평균 1.4개(17.1%)로 가장 많았으며, 비율 측면에서는 300억 원 이하가 50%로 가장 높았음(유찰 2건 중에서 수의계약 1건)

표 2 사업규모에 따른 유찰 건수와 수의계약 전환 건수: 2018~2022년

추정금액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합계
1,000억 원 이상	총건수	12	8	26	12	20	15.6	78
	유찰 건수	7 (58.3%)	5 (62.5%)	8 (30.8%)	5 (41.7%)	16 (80.0%)	8.2 (52.6%)	41 (52.6%)
	수의계약 전환 건수	0 (0.0%)	0 (0.0%)	3 (37.5%)	1 (20.0%)	3 (18.8%)	1.4 (17.1%)	7 (17.1%)
500~1,000억 원	총건수	3	8	7	3	9	6.0	30
	유찰 건수	2 (66.7%)	4 (50.0%)	3 (42.9%)	2 (66.7%)	4 (44.4%)	3.0 (50.0%)	15 (50.0%)
	수의계약 전환 건수	1 (50.0%)	0 (0.0%)	2 (66.7%)	0 (0.0%)	0 (0.0%)	0.6 (20.0%)	3 (20.0%)
300~500억 원	총건수	6	2	3	6	1	3.6	18
	유찰 건수	6 (100.0%)	0 (0.0%)	3 (100.0%)	3 (50.0%)	1 (100.0%)	2.6 (72.2%)	13 (72.2%)
	수의계약 전환 건수	2 (33.3%)	0 (0.0%)	1 (33.3%)	1 (33.3%)	1 (100.0%)	1.0 (38.5%)	5 (38.5%)
300억 원 이하	총건수	6	1	2	1	1	2.2	11
	유찰 건수	6 (100.0%)	1 (100.0%)	1 (50.0%)	1 (100.0%)	1 (100.0%)	2.0 (90.9%)	10 (90.9%)
	수의계약 전환 건수	2 (33.3%)	0 (0.0%)	1 (100.0%)	1 (100.0%)	1 (100.0%)	1.0 (50.0%)	5 (50.0%)

자료: 나라장터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기술형 입찰의 유찰 원인

기술형 입찰의 유찰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발주청 3곳의 전문가 3명, 건설사 2곳의 전문가 2명, 설계사 1곳의 전문가 1명, 기술형 입찰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 2명의 자문·인터뷰를 통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²⁾

유찰의 주요 원인은 ① 부족한 공사비, ② 과도한 입찰 준비비용, ③ 낮은 설계보상비, ④ 낮은 수의계약 전환 비율, ⑤ 중소기업 기술형 입찰 부족으로 나타남

- 부족한 공사비: 사업비 책정 후 발주까지 2년 이상 소요되어 물가변동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2021~2022년에 급증한 건설자재 가격과 이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 폭을 반영하지 못함(조달청 2023). 입찰자의 공사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낙찰자 결정방식의 개선방안 필요
- 과도한 입찰 준비비용: 입찰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부족하여 입찰서류 작성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으며, 부족한 기본계획 정보는 공사비 과소 책정의 원인으로도 연계
- 낮은 설계보상비: 입찰 준비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설계보상비가 적어서 입찰 참여여부 결정 시 부담 증가
- 낮은 수의계약 전환 비율: 최근 5년(2018~2022년)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전환 비율은 연평균 25.3%이며 공사비가 증가할수록 그 비율은 감소(나라장터 자료 분석결과)
- 중소기업 기술형 입찰 부족: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술형 입찰이 많아서 대형 설계사와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 발생

2) 참여자 소속 및 자문회의 개최일

참여자	자문회의 개최일	참여자	자문회의 개최일
발주청	2023년 5월 12일, 8월 10일	건설사	2023년 8월 22일, 24일
설계사	2023년 8월 8일	관련 연구자	2023년 5월 18일, 24일

03.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단기적 관점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지속되면 공사의 적시성과 정부 정책 구현을 지연시키므로,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 적용할 수 있는 유찰 감소방안으로 ① 기본계획 단계의 보완과, ②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③ 설계보상비의 개선, ④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⑤ 중소기업 기술형 입찰 확대를 제안(<그림 3> 참조)

-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 확정 이후 발주까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변동되는 공사비 간극을 해소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부기관과 법·제도를 연계하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

그림 3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유찰 감소방안①: 기본계획 단계의 보완

입찰 준비과정에서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족한 기본계획 내용의 보완방안과 계획설계 낙찰자를 기본·실시설계 및 시공의 우선협상자로 선정

- 기본설계 도서를 포함하여 입찰서류를 작성하는 기술형 입찰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므로,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대상으로 하는 유찰 감소방안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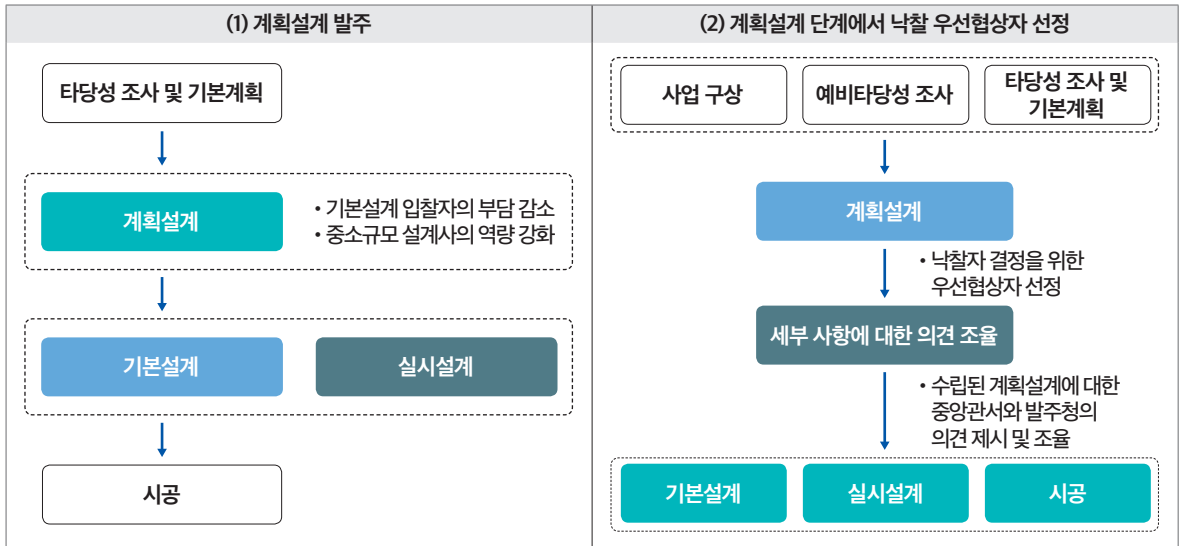
첫째, 입찰공고에서 제공하는 기본계획에서 설계요소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이후 계획설계를 공모하는 방안을 제안(<그림 4-(1)> 참조)

- 건축공사 설계단계별 업무의 비중은 계획설계 20~25%, 기본설계 29~30%, 실시설계 45~50%를 차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2020)
- 기술형 입찰에 계획설계 개념을 적용하면, 계획설계의 비중인 20~25%를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입찰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설계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설계사의 역량 강화도 기대할 수 있음

둘째, 계획설계 단계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면, 발주청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시간 단축, 설계보상비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그림 4-(2)> 참조)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관서와 해당 발주청이 함께 입·낙찰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및 수정사항 조율
- 입찰자는 기본설계 대신 계획설계와 관련된 입찰서류를 준비하므로, 입찰 준비비용과 노력 감소를 기대
- 하지만 기본설계보다 계획설계 입찰서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평가기준을 강화할 필요
 - 계획설계 입찰 시에도 사전 자격심사(pre-qualification: PQ)를 적용하는 방안과 유사 공사 수행실적에 대한 배점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그림 4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입찰자 부담 감소방안



유찰 감소방안②: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기술형 입찰의 참여 확대와 함께 공사비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설계평가점수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가격점수는 축소하는 낙찰자 결정방식의 적용이 필요

- 낙찰자 결정방식은 대부분 설계평가점수가 70%이고 가격점수가 30%인 가중치 기준을 적용

공사비를 확정하고, 입찰자의 설계 도서 혹은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의 적용을 확대 필요³⁾

발주청의 관점에서는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의 적용 확대가 활용 가능한 예산 감소로 연계될 수 있지만, 유찰 발생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공사기간 지연에 의한 손실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

- 중심제로 전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대 5개월의 공사기간 지연과 약 172%의 공사비 증가(<표 1> 참조)

유찰 감소방안③: 설계보상비 개선

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에서 낙찰되지 못한 입찰자의 설계보상비는 총사업비의 최대 1.4%이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은 총사업비의 최대 0.7%를 적용((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2023)

- 사업규모에 관계 없이 일정한 비율의 설계보상비 지급기준을 적용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2021)에서는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기본설계 작성 효율을 높게 적용

- 공사규모가 작아도 공종 수가 많으면, 설계 도서에 시간과 노동력을 많이 소요해야 하기 때문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기술형 입찰의 보상비 산정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안 검토

- 공사규모가 작은 기술형 입찰사업에서 입찰자의 증가와 중소·중견 건설사 및 설계사의 참여 확대도 기대

3)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2건만 발주(나라장터 자료 분석결과).

유찰 감소방안④: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통해 재공고 후 단일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심의를 수행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재공고 후 단일응찰에서 수의계약 전환을 평가할 수 있는 주체를 관련 법에 근거하여 지정함으로써 수의계약 전환에 대한 계약담당자의 부담 완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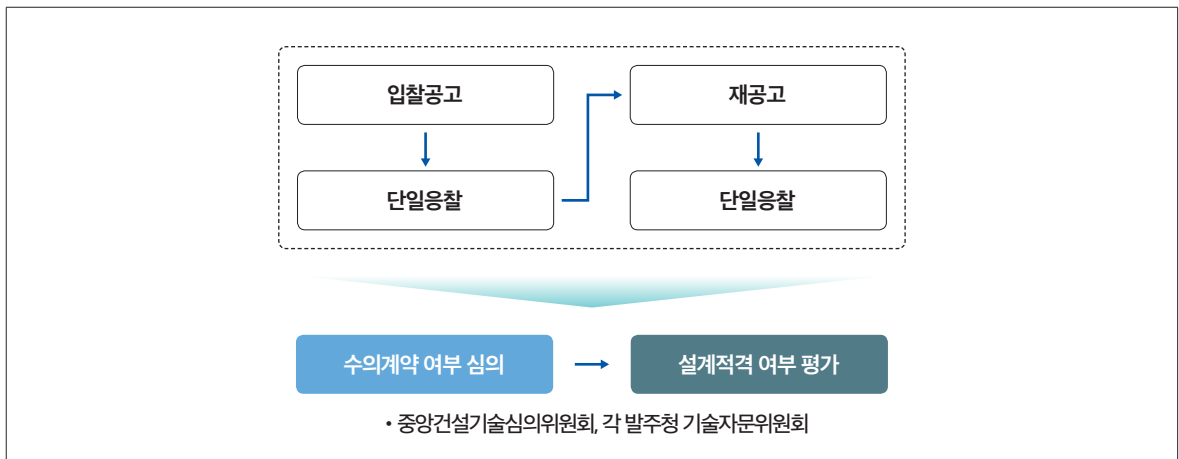
중앙건설기술심의회에서 재공고 후 단일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여부를 심의하는 법·제도 개정 필요

- 발주청에 소속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수의계약 전환을 심의하고 있는 발주청도 있으므로, 기술자문위원회도 심의할 수 있음을 법·제도에 명시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전환 심의를 통과한 사업이라도, 중앙건설기술심의회에서 수행하는 설계의 적격여부와 점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의계약이 성립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방안 필요

- 수의계약에서는 경쟁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수의계약을 위한 절대평가와 평가사유서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도 필요

그림 5 재공고 후, 단일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심의절차



유찰 감소방안⑤: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확대⁴⁾

2018~2022년 동안 500억 원 이하의 기술형 입찰을 수행한 건설사는 전체의 21.2%이고, 2022년에는 2건만 발주

- 반면에 500억 원 미만의 중심제 공사발주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

500억 원 미만의 중심제 공사를 기술형 입찰사업으로 발주하면,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사업의 확대와 중소·중견 건설사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500억 원 미만의 기술형 입찰사업을 중소·중견 건설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⁵⁾이 500억 원 미만인 건설사가 500억 원 미만인 중심제 공사의 수행 사례 조사

- 시평액 순위가 300위 이하인 건설사가 500억 원 미만 중심제 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건설사의 시평액과 수주한 공사 규모가 유사하거나 적은 사례가 있음(<표 3> 참조)
 - 이는 중소·중견 건설사가 500억 원 미만의 기술형 입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에 500억 원 미만 중심제 공사를 수행한 300위 이내의 건설사 시평액은 모두 500억 원보다 큼

4)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나라장터. 기술형 입찰사업. <https://www.g2b.go.kr>. 2023년 8월 26일 검색).

5)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사의 상대적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이며, 건설사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하는 제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021. 국토교통부령 제934호(12월 31일 일부개정).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중소·중견 건설사의 참여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유찰 감소와 공사의 적시성 향상을 위해 500억 원 미만의 공사를 기술형 입찰로 발주하는 건수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500억 원 미만의 기술형 입찰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

표 3 500억 원 미만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의 수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 개, 억 원)

공사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설사 수	시공능력 평가액	건설사 수	시공능력 평가액	건설사 수	시공능력 평가액	건설사 수	시공능력 평가액	건설사 수	시공능력 평가액
500~450억 원	1	499	1	576	1	665	1	424	1	482
450~400억 원	2	298	2	315	1	339	1	387	6	408
400~350억 원	8	318	7	212	10	413	5	378	6	320
350~300억 원	15	279	6	240	12	278	7	409	19	419
300~250억 원	21	288	16	318	20	306	24	347	21	341
250~200억 원	33	274	22	277	39	359	35	269	52	283
200~150억 원	55	230	65	283	66	310	70	267	59	248
150~100억 원	115	243	102	314	137	268	106	307	108	286

주: 추정금액과 도목건축공사업, 그리고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300위보다 높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함.

자료: 나라장터에서 제공한 자료(나라장터. 기술형 입찰사업. <https://www.g2b.go.kr>. 2023년 8월 26일 검색)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참고문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021. 국토교통부령 제934호(12월 31일 일부개정).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20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9월 14일 일부개정). 제6조(설계업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3. 대통령령 제33198호(1월 3일 타법개정).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78조(적용대상 등), 제79조(정의), 제97조(적용대상 등), 제98조(정의).

국가철도공단. 기술형 입찰사업이 유찰 후에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 <https://www.kr.or.kr>, 2023년 6월 20일, 요청자료.

국가통계포털. 건설공사비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97&tblId=DT_39701_A002&conn_path=13 (2023년 8월 26일 검색).

국토교통부. 2022. 기술형입찰 공정성 높인다. 발주청 중심 평가 시범사업 본격 추진. 6월 29일, 보도자료.

나라장터. 기술형 입찰사업. <https://www.g2b.go.kr> (2023년 8월 26일 검색).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20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7월 29일 일부개정).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조달청. 2023. 공사비 사전확인... 기술형 입찰사업 유찰 막는다. 6월 14일, 보도자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023. 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6월 16일 일부개정).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제87조의3(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 이 브리프는 “이치주, 김민철, 최명식. 2023. 기술형 입찰의 최소화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이치주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시장연구본부 연구위원(cjlee@krihs.re.kr, 044-960-0147)
- 김민철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시장연구본부 연구위원(mckim@krihs.re.kr, 044-960-0391)
- 최명식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시장연구본부 연구위원(mschoi@krihs.re.kr, 044-960-0385)